



명예회복이나 또 굴욕이나

박태환 마지막 1,500m 도전도 '가시밭길'
맞수 장린 800m 세계신기록 무서운 성장



세계챔피언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이름이 무색해진 박태환(20·단국대)이 2009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박태환은 8월1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대회 남자 자유형 1,500m 예선 경기에 출전한다. 남자 자유형 400m와 200m에 이어 이번 대회 마지막 출전 종목이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2007년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거꾸로 금메달을 뒀던 자유형 400m에서는 12위로 예선 탈락했고 멜버른 대회 동메달, 베이징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자유형 200m에서는 준결승에서 13위를 차지해 모두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예선에서 부정출발로 실격을 당하는 실례를 겪은 이후 앞만 보고 달려왔던 박태환에게 이번 대회는 큰 시련이었다.

박태환은 올해 두 차례 미국 전지훈련을 하면서 장거리 기록 향상을 위해 지구력을 강화하고 턴 동작 등을 갈고 닦는데 힘을 쏟았다.

그래서 자유형 1,500m에 대한 기대가 컸다. 장거리 훈련에 치중하는 라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훈련 시간은 부족해 주 종목인 자유형 400m와 200m에서는 큰 낭패를 봤다. 애초부터 훈련량이 모자라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번 장린을 잠재우려면 1,500m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30일 오전 열린 남자 자유형 800m 결승은 이를 뒤 처리될 자유형 1,500m 판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장린은 7분32초12에 물살을 갈라 그랜드 해킷(호주)이 4년 전 몬트리올 세계대회에서 세운 종전 세계 기록(7분38초65)을 깨뜨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날 결승에 출전한 8명 중 7명이 자유형 1,500m도 출전한다.

특히 장린은 예선 4초에서 5분 레인에 배정돼 3분 레인의 박태환과 레이스를 펼친다. 박태환은 올림픽 종목이 아닌 자유형 800m에서는 따로 기록이 없다. 다만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1,500m 경기를 치를 때 800m를 7분53초04에 끊은 바 있

다.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장린이 이날 세운 800m 기록과는 20여초나 차이난다.

호스에서 TV로 경기를 지켜봤다는 노민상 경영대표팀 감독은 "비교 대상이 다르다"면서도 "800m 출전 선수들의 기록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노 감독은 "멜로리나 장린이나 만약 태환이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붙어볼 만하다"면서 "장거리 연습을 많이 못 해 이번에는 자기 기록만 깨 줘도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한 걸음 물러섰다. 박태환은 레이스 페이스 훈련을 실시하면서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제' 펠프스 점영 200m 세계신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24·미국)가 남자 점영 2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빛 물살을 갈랐다.

2008 베이징올림픽 8관왕 펠프스는 30일 오전(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 이탈리아로 콤플렉스에서 열린 2009 로마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점영 200m 결승에서 1분51초51의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

서 자신이 금메달을 탈 때 세운 1분52초03의 종전 세계 기록을 0.52초나 단축했다. 지난 200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남자 점영 200m의 1분55초 벽을 허물었던 펠프스는 이날까지 7차례나 더 기록을 줄이면서 1분51초대에도 가장 먼저 진입했다.

펠프스는 2위 파벨 코르제니우스키(폴란드)보다 1.72초나 빨랐다. 동메달은 마쓰다 다케시(일본)가 가져갔다. /연합뉴스

이번 대회 경영 종목 첫날 남자 계영 400m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전날 자유형 200m에서는 개인 최고 기록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던 펠프스가 이번 대회에서 수확한 금메달은 이제 두 개가 됐다. /연합뉴스

보성여중 역도는 6, 동 3 '번쩍'

문광부장관기 전국학생역도

보성여중 역도부가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도대학 학생 역도경기대회에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보성여중은 29일 강원도 양구용화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중부 경기에서 이은경(53kg급)과 김솔이(58kg급)이 각각 은 3개씩을, 손수지(58kg급)는 동 3개를 획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날 경기에서 이은경은 인상 63kg·용상 70kg를 들어 합계 133kg을 기록, 최가은(경기선부중·134kg)에 1kg 차로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김솔이도 인상 62kg·용상 81kg으로 합계 143kg을 기록했지만 김예라(강원진부중)에게 뒤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팀동료 손수지는 인상 55kg·용상 66kg으로 합계 121kg을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8월14~16일 아이스쇼에서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을 겨냥한 새 시즌 프로그램의 배경 음악을 내달 예정된 '삼성 애니콜★하우젠 아이스 올스타즈 2009'(8월14~16일·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에 맞춰 공개한다.

김연아는 30일 매니저먼트사인 IB스포츠를 통해 "다른 선수들이 새 시즌 음악을 공개하고 있다. 나 역시 너무 숨기기보다는 오는 8월 아이스쇼에 맞춰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2010 밴쿠버 올림픽 여자 피겨에서 금빛 경쟁에 나설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19·일본)는 이미 새 시즌 프로그램 음악과 안무를 일찌감치 공개했다.

김연아는 캐나다 전지훈련의 성과에 대해

"컨디션과 체력 훈련에 이어 지금은 새 프로그램을 몸에 익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올림픽뿐 아니라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그랑프리 시리즈를 향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훈련과 운동을 매일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상 때문에 훈련과 경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며 "지난 시즌에도 조절을 잘해서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올해도 꾸준히 관리를 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새 시즌 프로그램 완성도에 대해서 "소프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의 안무는 6월 말 모두 끝났다. 지금은 조금씩 가다듬는 단계"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어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빨리 완성하려고 매일 탐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연아는 그러나 "새 프로그램 음악은 다음 달 아이스쇼에 맞춰 공개하지만 프로그램



램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며 "피겨 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10월15~18일·프랑스 파리) 개막에 맞춰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공이 수박만하게

엘레나 디멘티에바(러시아)가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에서 열린 WTA 투어뱅크 오브더 웨스트클래식에서 미리아 키리렌코(러시아)가 친 볼을 받아 넘기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샤라포바 가볍게 8강

마리아 샤라포바(62위·러시아)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뱅크 오브더 웨스트클래식(총상금 70만달러) 단식 3회전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샤라포바는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단식 2회전에 나디아 페트로바(10위·러시아)를 2-0(6-1 6-2)으로 가볍게 따돌렸다. 지난해 7월 어깨 부상 이후 5월 투어 단식에 복귀했던 샤라포바는 이후 네 차례 대회에 나와 6월 영국 버밍엄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다. /연합뉴스

여자프로골프단 챔피언십

내달 3일 샌추리더 골프장

여자프로골프단이 대결하는 제일저축은행컵 제1회 프로구단 챔피언십이 8월3일과 4일 강원도 원주 샌추리더 골프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는 코오롱엘로드, 동아회원권, 푸마, 김영주골프, E2, 엘르, 밴호건, ADT캡스 8개 구단에서 3명씩 24명이 출전하며 개인전과 단체전을 혼용한 18홀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연합뉴스



31일(금) ▲전국대학축구대회 준결승(12:50·SBS 스포츠)

▲2009 부산 국제배구대회 여자부 준결승(13:50·KBS n스포츠) <산토리: 저장>(15:50·KBS n스포츠)

▲2009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한신>(17:50·SBS스포츠)

▲2009 프로야구<LG: 히어로즈>(18:10·KBS n스포츠) <SK: 두산>(18:15·MBC ESPN) <삼성: 기아>(18:15·Xports) <롯데: 한화>(21:00·SBS스포츠)

▲2009 리코 브리티시 여자 오픈 2R(23:00·SBS골프)

1일(토) ▲2009 세계수영선수권대회(01:45·KBS2·KBS n스포츠)

▲피스컵 안달투시아 준결승(03:20·SBS스포츠)

▲2009 PGA 뷰의 오픈 2R(04:00·SBS골프)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연수일정(2009년 제3기)

- 개강일시: 월요일 오전반 2009. 9. 31(월) 9:10, 오후반 2009. 8. 31(월) 13:4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8. 31(월)
- 수업기간: 2009. 8. 31(월)~2010. 2. 8(월) (6개월/24주)
- 수강료: ₩300,000
- 모집인원: 1단계 오전, 오후반 선착순 각 30명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반 9:10~13:00, 오후반 12:40~17:30
-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서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 (2단계 수료시)), 각 한문학원 및 학원개설 및 감사추천,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 감사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전화 (062)530-3873~5
- H.P 010-2611-1171
- 광주은행:074-107-004114(예금주: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ttp://sle.jnu.ac.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09년 제 9기)

구분	일정
• 개강일시	금요일 2009. 9. 4(금) 09:10, 토요일 2009. 9. 5(토) 09:10
•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9. 5(토)
• 수업기간	2009. 9. 4(금)~2010. 2. 27(토) (6개월/24주)
• 수강료	₩298,000

• 모집인원: 1단계 금요일/토요일 반 선착순 각 20명

• 수업시간: 매주 금, 토요일 9:10~13:00

•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발급 수료증 수여, -한국대학 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각 한문학원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전 화: (062)950-3584, 3585
- H.P: 011-614-4160
- 광주은행: 8148-107-307803(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 kwu ac kr.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 (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합	수완지구	건축상당
첨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완택지개발지구 아주저렴지 혈의양도인택지 생활개편용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억 방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분류관광부지 2900 2600 4900평 수원동 4차선형 1200평 1800평 북구본충동 850평	전용 가능한 금매물 자연녹지: 3800평·대형차진입기 6차선급 생산녹지: 2800평·광충광단인근 특가상당 우량임야 (연수원 녹지시원 관광용 사들) 면적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무등빌딩임대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 상업지역, 지하철역세권, 신형 주차시설 완비, 중앙공급식 냉·난방,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